

# 한국불교 동력, 반세기 열정 되짚어 보다

## 대불련, 창립 50주년 기념식 열어... 생명평화공동체 선언

“우리는 진리의 빛 참다운 구도자가 되겠다. 우리는 진리의 열 참다운 생명가치를 구현하겠다. 우리는 진리의 빛 참다운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

반세기 동안 청년 불자의 열정과 노력으로 함께 이어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인들이 세대를 아우르며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박지연, 이하 대불련)와 대불련50주년 기념사업회(총재 자승)는 8월 1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백양사 수좌 지선 스님을 비롯해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 총재, 이기중 중앙신도회 회장, 원유자 대불련총동문회 회장, 대불련 동문 및 재학생 500여명이 참석해 대학 생명평화공동체를 일구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행사는 1부인 개회선언, 삼귀의례, 한글반야심경, 삼대강령, 경과보고, 50주년 기념사, 환영사, 치사, 내빈소개, 축사, 감사패·공로패 증정, 대불련 50년 사진기록 영상, 대불련 미래비전 선포, 축하 락키트 공연과 기념촬영과 2부 저녁만찬 및 축하하마담으로 이어졌다.

1부 행사에서 대불련인들은 △참다운 구도자가 되기 △참다운 생명가치 구현 △참다운 복지사회 건설의 삼대강령을 선언했다.

박지연 회장은 50주년 기념사에서 “수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대학생불자를 사랑하고 지지해준 수많은 사부대중이 계셨기에 대불련은 세상을 밝혀나가는 법등으로 50년을 이어올 수 있었다. 50년 역사를 함께 했던 모든 인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50년을 넘어서 저희 대



1부 행사에서 대불련인들은 △참다운 구도자가 되기 △참다운 생명가치 구현 △참다운 복지사회 건설의 삼대강령을 선언했다.



박지연 회장(맨 왼쪽)과 홍지연 대불련 지도위원장(오른쪽서 두 번째) 및 현 대불련 학생 등 4명이 ‘대학 생명평화공동체 미래비전’을 선언했다.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키는 큰 역할을 했다. 50년 동안 한결 같이 대학생 포교의 원력으로 대불련을 이끌어온 역대 모든 대학생 불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대학생 불자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동량이다. 청년들의 힘과 열정은 앞으로 이 나라를 불국토로 일구는 귀중한 땅방울이 돼 줄 것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왕성한 활동과 정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사에 이어 박지연 회장은 자승 스님에 대불련 50년 활동의 흐름과 사건을 사진과 자료로 정리한 <사진으로 보는 대불련 50년사 진리의 빛·열·빛>을 봉정했다.

이후 26년간 공주교대 지도법사를 맡은 해월 스님을 비롯해 흥파 스님(동국대 63학번), 보명 스님(경희대 63학번), 윤월 스님(한양대 61학번), 김윤권(서울대 60학번), 명호근(서울대 61학번), 옥치담(부산대 61학번) 등 동문이 감사패와 공로패를 받았다.

대불련 50년 사진기록 영상 시청 후 대불련 미

래비전 선포와 대학전법센터 건립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으며, 박지연 회장과 홍지연 대불련 지도위원장 및 현 대불련 학생 등 4명이 ‘대학 생명평화공동체 미래비전’을 선언했다.

이들은 “모든 생명이 서로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인류가 가야 할 길도 여기에 있으며, 우리 대학생불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도 여기에 있다”며 “우리는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시대의 부름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대학 생명평화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 갈 것임을 선언한다. 미래의 희망인 대학생들이 개개인의 삶을 채운 생명평화의 기운이 동아리로, 대학 캠퍼스로, 세상으로 흘러들어 평화와 행복을 도모하는 붓다의 길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김정현 대불련 정책간사(미래비전을 구체화한 ‘대학전법센터(Life & Peace Community)’에 대해 소개했다.

대불련은 대학전법센터를 통해 힐링, 나눔, 연구, 교육 등 4가지 세부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륜·해인·도법 스님 등 불교계 대표 스님 및 교육계 전문 인력으로 멘토단을 구성하고 순회강연과 북콘서트, 토크쇼 및 힐링 템플 스테이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생명평화공동체를 위한 나눔 활동을 실시한다. 이밖에 젊은 감각의 불교 이미지 및 콘텐츠를 개발·연구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포교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인력 교육과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에서는 저녁만찬 및 축하하마담이 이어졌다. 대불련 문화부와 대불련 졸업동문들이 노래 한 곡씩 공연을 선보였으며, 재학생과 동문들간 소개의 시간도 이어지는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내는 기자 oasis1983@ryunul.com

## 대불련을 거치간 동문



해월 스님 (공주 원효사 주지) 26년간 공주교대 지도법사 담당

1970년대 대학시절 금산사 도법·원행 스님이 지도해 주셨다. 내가 대불련 지도법사를 맡게 된 것도 학생시절 큰 스님들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다. 40년 전에 비하면 현재 대학생들의 신행활동이 워낙에 현장에 있는 법사로서 위기감을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한 불교 인적 저변이 있다. 불교 학생회 지원을 법회로 끌어 들이는 지도법사, 지도교수, 대불련 회원들의 역량 발휘가 필요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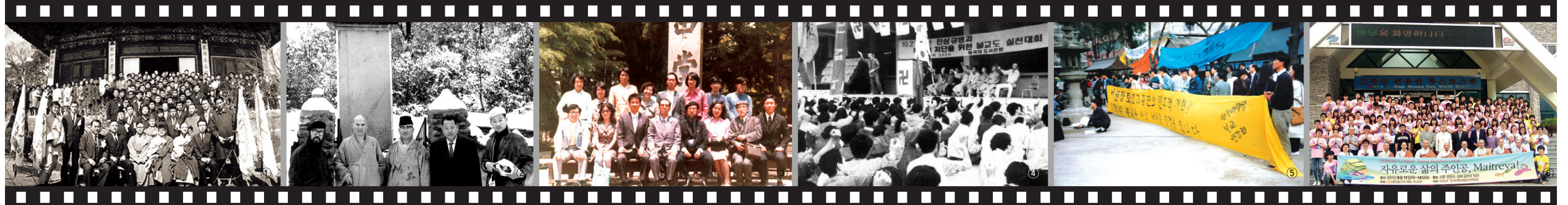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 총재

오늘날까지 대불련은 1960년대 이후 한국불교를 기본 불교에서 청년 불교로 거듭 발전시켜 한국불교 대중화와 현대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한때 200여개 대학에서 2만 명 넘는 회원으로 발전한 대불련이 오늘날 대학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불련 재학생 및 동문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손을 맞잡고 꿈과 원력이 이루어지는 날 까지 불퇴전 의지로 정진해 나가시다.



윤제철 전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

1960년 대 대불련 활동을 하면서 성철·창당·퇴공·탄허·광덕·법정 스님 등 불교계의 큰 스님들을 만나면서 나의 인생관·우주관이 불교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당시 고승대덕들과 많은 학자들이 대불련에 관심을 갖고 법문을 펼치셨는데, 요즘에는 대불련에서 큰 스님 모시기가 어렵다고 한다. 사부대중이 대학생 불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①1967년 봉은사 제4차 전국 대의원대회 ②1966년 대불련 학생들을 위해 법문을 펼친 박성배 교수, 이한상 거사, 송산·성철 스님, 서경수 교수(오른쪽부터) ③1972년 한일불교학생회 교토 방문 ④1989년 동국대서 10·27법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불련 학생들 ⑤1994년 중단 개혁 당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시위하는 대불련 청년불자들 ⑥2011년 고창 선운사에서 진행된 Young Buddhist Camp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KBUF) 50년 연표

**1960년대 대불련의 창립과 구도의 여정**

1963. 9. 22 대불련 창립(17개 대학·사관학교 학생 참가)

1965. 3. 4. 지부설립 결의

1965. 4. 1. 창기학회(현 SG) 규약대회

1965. 5. 1. 제1회 제등행렬서 주도적인 활동 펼침

1967. 3. 서울, 충남, 강원, 경남 전북지부 등 56개 지회 설립

1967. 3. 대불련 회기 및 마크·회가 제정

1967. 4. 1. 군중승제도 추진위 결성

1967. 4. 1. 제1차 명예회원 추대식(탄허·행원·능가·광덕 스님, 서돈각, 이기영, 김영두, 홍정식, 이종익, 서경수, 이한상 등 명예회원 추대)

1967. 10. 대불련 출신 졸업생 중심으로 학사불교회 창립

1968. 11. 8.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창립

1968. 11. 30. 국방부 군중승 설치안(5월), 5명이 최초 군중승 임명

**1970년대 전국조직화와 화랑대회**

1972. 8. ‘화랑대회’ 개최 전국 17개 지부, 83개 지회 간부 참석

1973. 2. 8. 대불련 83명 대표자 선발

1973. 1. ‘지구별 연합수련대회’ 권역별 거울수련회 개최

1973. 6. ‘제4회 한일학생불교회의’ 개최

1975. 2.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기념 남북통일 기원 대회

1975. 3. 조계종 총무원서 한일불교세미나 개최

1975. 5. 여익구, 고준환, 황석영 중심 민중불교회 결성

**1980년대 민중불교 이념의 전개와 1600년 대회**

1980년대 초 대불련 지방조직(서울·수원·원주·청주 등) 중심으로 약학 활동

1982. ‘화랑대회’를 ‘한국불교 1600년 대회’로 명칭 변경

1983. 7. 17. 불교개혁 세력 2천여 명 전국청년불교도연합 결성

1984. 10·27법난 규탄 성명

1985.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해인사 승려대회 등 불교운동에 동참

**1990년대 중단개혁과 통일운동, 내적인 혁신운동**

1994. 대불련 집행, 조계종단 개혁운동에 동참

1990년대 후반. 대불련 집행, 조계종단 개혁운동에 동참

1990년대 후반. KBUF 아카데미 개설, 불교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실시

1990년대 후반. 지역·지부별 생태학교,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 시도

**2000년대 21세기 새로운 도전과 모색을 통한 활동 영역의 확대**

2000. 6. 6.15 공동선언이후 통일운동 등으로 지속적 통일운동

2000년대 중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종교인권 운동 펼침

2000년대 후반. 김보디야, 중국, 일본 통해 역사·세계사 전문 확대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 보고·듣고·배우는~

###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 의식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

### 염불(念佛), 염승(念誦) 모습

**■ 염승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백대참회문, 대불정능염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필양신주경, 보광삼매론

**■ 염승의법**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49재편, 시식·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 경전학습기에는 영어·중국어·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된 음질의 녹음기능